



통권26호

후원회소식

발행일/1993. 12. 11.

발행인/권오현

발행처/민가협

양심수후원회

주소: (110-542)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전화 (02) 763-2606, 745-5604



- ▶ 7일 오후 농민·학생·시민 등 3만여명이 '쌀과 기초농산물 수입개방 저지 범국민대회'를 마친 뒤 서울역광장을 출발해 왕복 8차선 도로 가운데 4차선을 가득 메운 채 쌀개방 반대 구호를 외치며 남대문쪽으로 향하고 있다.

따뜻하고 강한 눈빛의 영원한 청년

편집부

11월 17일 조선일보 기자수첩에는 국제민간인권옹호단체인 국제사면위의 인권실태 발표에 관한 글이 실렸다. 「비전문가'의 인권판정」이란 제목의 이 칼럼에서는 여전히 수많은 정치범, 양심수들이 감옥에 있으며 국가보안법과 국가안전기획부의 전횡이 존재하는 한 인권상황은 열악할 수밖에 없다고 결론 지은 조사단의 기자회견에 대해서 “한국의 인권상황이 왜 열악한지에 대해서는 납득할만한 기준과 설명을 제시하지 않으면서 한국문제 전문가가 아닌 몇명이 불과 보름동안 어느 한쪽의 안내로 한국을 간단히 둘러본 뒤 우리의 인권실태를 자신있게 평가” 판결한 자세를 비난하였다. 더불어 칼럼은 “그들의 이같은 ‘인권’ 판결이야 말로 ‘인권유린’ 못지 않게 심각한 ‘국권유린’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떨칠 수 없었다.”고 기사화 하고 있다. 이처럼 국제사면위의 인권조사를 ‘국권유린’으로 매도 하면서까지, 우리의 인권 상황을 외면하고 있는 ‘문민시대’ 속에서 오늘은 43년간을 감옥에서 복역하신 이종환 선생님을 찾아 뵈었다. 이종환 선생님은 올 3월 6일 대전교도소에서 출소하신 뒤, 현재 양심수후원회에서 마련해 드린 봉천동 작은 집에서 살고 계시다.

작은 체구에 흰 머리가 가뭇가뭇 나섰고, 체육복 바지 차림에도 무척이나 단정한 느낌을 주시는 선생님은 1922년 경기도 부평의 중농 가정에서 8남매의 장남으로 태어나셨다. 선생님이 12살 때, 아버님이 양조장 일을 하시다 걸린 동상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보통학교를 마친 후 공장에서 노동일을 시작하셨다. 주로 공장에서 배관공 일을 하시다가 해방을 맞으셨다. 그러나 선생님이 맞은 해방은 일제의 지배에서 점령군으로 들어온 미군정으로 바뀐 것 뿐이었다. 더우기, 외세에 의해서 남북이 분단되었을 때, 선생님은 “조국통일을 위해 작은 밀알이 되자”는 생각으로 반외세 통일운동에 임하셨다고 한다. 독립운동가들을 개인자격 이외에는 일절 입국시키지 않은 미군정, 반민특위를 탄압한 이승만 정권, 일제청산은 커녕 그 악독한 친일과 인물들을 그대로 기용하며 이루어진 정부 수립. 이러한 해방과 분단의 모순속에서 그저 먹고 사는 것이 힘들던 노동일꾼은 이 거래의 통일일꾼으로 변화하신 것이다. 선생님은 전쟁중에 북으로 가셨다가, 51년 10월경 가족이 있는 곳에서 통일운동을 하겠다는 생각에 남쪽으로 오시게 된다. 그러나 군사분계선에서 미군에게 체포되어, 군법재판에서 이적행위죄로 15년을 언도받으셨다. 그후 전쟁중 대구교도소에서 53년 4월에 죄명이 간첩으로 바뀌면서 사형을 언도받으셨다고 한다. 사형선고를 받으신 채 1년 가량을 복역하시다가 54년 무기로 감형되셨다.

선생님께서서는 너무도 간단하게, 56년과 73년의 전향공작은 너무도 혹독하셨다고 말씀하셨지만, 43년간 비전향자로서의 신념을 지키신 선생님의 옥고는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민가협 등 여러 인권단체

에서 세계 최장기수는 만델라가 아닌 우리의 장기수 선생님들임을 알리고 사회 여론화시키자, 정부는 만 70세 이상의 장기수는 석방시키는 방침을 마련하였다. 이에 따라 선생님은 올해 3월 6일 출소하셔서, 충남 아산요양원에서 지내시다가, 6월 중순께 서울로 올라와 현재 낙성대에서 살고 계신다.

통일은 이루어질 것이고 역사바퀴가 거꾸로 도는 법은 없다고 강하게 역설하시는 선생님은 통일은 누가 가져다 주는 것도 아니고, 특정의 사람들만이 일해서 얻어지는 것도 아니라고 말씀하신다. 따라서 누구든지 통일을 위해서 스스로 자기 자리에서 일감을 찾아야 한다는 것이다. 또한 “나는 자격이 없다”는 등의 소극적인 자세도 버리고, 내가 얼마만큼 노력하느냐에 따라서 통일의 시기는 앞당길 수 있다고 생각하고 노력하자고 하신다. 사실 통일은 하나의 유행어처럼 우리 사회에 흔하게 널부러져 있기도 하다. 그러나 선생님은 그러한 부작용을 충분히 감안하더라도, ‘평화통일’이라는 말만 해도 죄인으로 몰린 이전에 비해서, 통일에 대한 민족의 발걸음은 한발씩 나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냐고 말씀 하신다.

선생님은 25세인 46년에 결혼하시고, 46년, 49년에 딸 둘을 얻으셨다. 그러나 어머님과 부인은 선생님이 감옥에 계실 때 돌아가시고, 딸 둘과 누이동생의 생사는 알 수 없다. 그래서인지 선생님은 아이들을 무척이나 좋아하신다. 한 후원회원의 딸이 인형같다고 흐뭇하게 떠올리시는 선생님의 아이사랑은 이미 후원회원들에게 유명하다. 후원회원들이 찾아 빌라치면 지하철 역까지도 마중 나오시며, 젊은이들과의 만남은 아무리 길어져도 즐거워하시는 선생님은 무척 다정하고 따뜻한 마음을 나누어 주신다. 또한 선생님은 아직도 매일 새벽에 일어나셔서 독서를 하시는 건강함을 지니셨고, 매우 검소한 생활을 하고 계신다.

“비전향자에게는 인권이 없다”는 말은 전향공작중 수도 없이 되풀이되는 말이었다고 한다. 우리의 부



▲ 지난 11월 27일, 역사기행에 함께하신 이종환 선생님.
차가운 겨울을 녹일만큼이나 눈빛이 따스하다.

모님이며, 우리 형제인 사람들을 편견으로 매도하고, 그들의 인권을 유린해온 것이 우리의 역사이다. 이종환 선생님이 3월 6일 출소하실 때, 1, 2달 차이로 만 70세의 기준이 되지 못해서 출소하지 못한 선생님도 계시다고 한다. 이처럼 “납득할만한 기준과 설명을 제시하지 않은” 이유들로 아직도 추운 감옥 독방에서 이 겨울을 지내실 장기수 선생님들이 존재하는 현실속에서도, 우리의 인권점수가 단죄당했다고 이야기할 수 있을까.

그런 사람에게는 43년이라는 긴 세월을 비전향 장기수로 생활하신만큼, 43년간 젊은 열정과 기백을 잃지 않으신 청년장기수 이종환 선생님의 따뜻하고 강한 눈과 마주하기를 권하고 싶다.

내 눈에 사랑이 고이고 아름다움이 비칠 때

신 지 혜

(미국 시카고 거주 · 세탁업)

세탁 편이점(드랍-오프) 연지도 어느새 반년이 다가온다.

비록 흑인 동네에 있는 작은 가게지만 이민 와서 처음 가져보는 내 가게라 감회가 남다르기만 하다. 흐뭇하고 기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두렵고 걱정이 되기도 한다.

처음 가게를 열었을 때... 아침 해처럼 밝게 웃으며 친절하고 씩씩하게 서비스 하려고 했는데, 그것이 말처럼 쉬운 일이 아니었다. L·A 쪽 동과 시카고 볼스 난동 때 그들이 보여준 과격한 행동이 떠올라 손님이 오면 반가운 게 아니라 겁부터 났다. 말이 났으니까 말이지 흑인이 쏜 총에 목숨을 잃은 한국사람이 어디 한 두명 이겠는가? 나 역시 생활을 위해 이렇게 가게에 나왔지만, 하나밖에 없는 생명이라 무섭고 떨리기만 한다. 내가 늘 긴장해서 그런지 손님도 불안한 기색이다.

하루는 분위기를 부드럽게 하고자 박하사탕 그릇을 카운터 위에 놓았다. 손님도 한 개 나도 한 개, 이렇게 입에 넣고는 병긋이 웃는데 낮익은 '체슨'이란 학생이 친구들과 들어온다. 바지를 찾아 가면서 사탕을 한 주먹씩 주머니에 넣고 있다. 뒤에 오는 사람을 위해 몇 개만 가져 가라고 넌즈시 일러 주었지만, 안들리나 보다.

어떤 손님은 세탁비를 싸게 해달라고 한다. 그동안 단추가 떨어진 건 그냥 달아주고, 술기가 터진 데는 꼼꼼하게 꼬매주고 여기저기 손질해주었지만 고맙다는 말도 없이 티무니 없는 가격을 말할 때는 기운이 빠지고 그만 사는 재미까지 없어진다.

2

이래저래 속이 상하자 몸도 아프고 흑인촌에 세탁소 낸 것이 후회스러운데... 그나마 오던 손님도 발길이 멀어지고 있다. 이래선 안되겠구나 싶어 뭐가 잘못됐는지 가만히 뒤돌아 보았다.

11월은 감사의 계절이라... 그동안 보살피 주신 은혜를 생각하며 글 한 편을 써 보았습니다.

양심수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모든 분께 감사의 마음을 전하고 싶습니다.

1993. 10.23.

3

4



“엄만 자식덕에 완전 새 세상을 봤제”

편 집 부

“엄마 유식하게 말 할줄도 모르는데 뭘 말을 하라고?…… 우리 촌사람들처럼 불쌍한 사람들이 없어야. 세상이 어떻게름 돌아가는지도 모르고 죽어라 일만 하며 사니께. 그래도 엄만 자식덕에 완전 새 세상을 봤제”

서울에 올라오실 때마다 김치며, 나물이며 바리 바리 싸들고 오셔서 민가협 사무실 식구들을 챙겨 주시면서도 항상, “니들, 밥은 먹었냐”가 인사이신, 제4기 전대협 의장 송갑석군의 어머니 정양엽(58세)님. 두려움 없는 싸움꾼으로 유명했던 아들 만큼이나 씩씩하고 활달한 ‘민가협의 엄마’ 이시다.

“부모가 자식한테 물려주는 건 오직 덕이여. 자식이 혹 잘못을 해도 부모가 덕을 쌓았으면 덮여지게 마련이지. 그것을 목표로 하고 살았다네. 남의 집 가도 그집 잘해놓고 사는 것 욕심하나 안 부렸지. 재산은 사기도 당하고 남에게 뺏겨 없어지기도 하지만, 배워는 것 허구 사람좋은 것은 누가 어찌 못한께.”

어머니의 고향은 전라남도 고흥(포두면). 친정 이 ‘짱짱한’ 집안이어서 남들에게 무시는 안받고 살았지만 어머니를 일찍 여의는 바람에, 모친의 사랑없이 늘 기가 죽어 자랐다는 어머니는 인근 마을에서 성실하기로 소문난 지금의 남편에게 시집가, 수저 한벌 유산 받은 것 없이 맨주먹만으로 살림을 일궈나가셨다고 한다.

작은 것 하나라도 일을 안하면 얻을 수 없고 모든 것을 일일이 만들어 자급하던 때라 아이들에게 젖도 제대로 못먹이고 키웠지만 5남매 모두 순하게 자라주었다고 한다.

“갑석이는 어려서부터 좀 특이했어. 사람들이 굶보고 섰다 싶으면 갑석이 재롱 보고 싶은 것인께. 논바다 땡땡 얼은 겨울이고 뭇이고 옷을 안입고 맨발로 뛰어 날치고, 동네 애들 다 데리고 다님서 놀이도 시키고 하니 그걸 보고 사람들이 웃어 싸. 사람들이 재롱 보고 예쁘다고 돈을 주니, 즈그 부모 돈준일 없는디 항상 뭇을 사먹네. 그라고 즈 누나, 형이라고 먹을 것도 갈라주고.”

그때까지의 가장 큰 한은 첫째 아들의 죽음이었다. 다 키운 아들, 병으로 먼저 보내고 나서 좋은 일이 생겨도 좋은 줄을 몰랐다. 갑석군의 둘째형이 학생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했을 때도 학생회장이 되면 어찌됐든 결국 붙잡혀갈 것이란 생각에 극구 말리셨다. 어머니에겐 자식들이 그저 평범하고 건강하게 사는 것이 제일이었다.

그러다 87년 겨울, 갑석군이 갑자기 구속되었다. 당시 대통령선거 때여서 어느 후보의 선거운동을 끝마치고 돌아오다가 민정당 후보의 플랭카드가 붙어 있는 걸 보고 떼어 낸 일 때문이었다. 그 일로 3개월을 보낸 뒤 집행유예로 석방되었다.

“즈그 형이 죽고나서 애달아 하지도 않았어. 먼

오늘, 내 사는 이 땅이 자랑스롭다!

회한번 안갔으께. 그런 고생을 해도 지는 살았으께 다시 좋은 꼴 보지 않겠냐 싶고, 그 때 갑석이가 나오면서 광주교도소에 계신 장기수 분들의 소식을 전했는디, 아마 그때 그 안에서 많이 배웠을거.”

그리고 나서는 얌전히 잘 다닌다 싶더니, 이번에는 갑석이가 총학생회장에 출마 한다는 것이었다. 팔팔하고 급한 성격이라, 차라리 둘째는 왜든 막내 갑석이는 안된다고 말렸는데 그래도 막상 합동 유세가 있다는 날에는 남편을 부추켜 나섰다.

“그날 비가 올라고 우지좌지해. 가니 갑석이가 두루마기 입고 한복 입고 머리띠 매고 학생회관 앞에 섰는디. 어마, 지가 뭐가 된 듯 하더구만. 사람들이 굿 불려고 엄청 몰렸는디, “저기 저 3번 고흥 애가 야물다네” 소리도 들리더만.

우리가 할 줄은 몰라도 들을 줄은 알지. 언제 저것이 저렇고름 말을 배웠을까 신기할 정도로 잘하더만.”

갑석군은 얼마후 다시 전대협 의장에 당선되었고, 그 며칠후 집에 인사차 한번 온 것이 마지막이었다. 계속되는 수배생활을 고향에 이런 저런 말도 많이 들었지만, 학생들의 운동을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지역특성상, 많은 이들이 격려해주었다. 수배전단까지 모아다 준 사람도 있었다.

“그라고 안 잡히고 잘 지낸다 싶더니, 결국은 구속됐다는 소식이 오더만. 부랴부랴 서울로 올라 왔

는데 즈그 형이 그라데. 엄마는 그저 민가협 엄마들이 시키는대로만 하소 하고, 그때부터 민가협 엄마들과 같이 일주일을 싸웠재. 하도 소리를 질르고 난리를 쳐부니, 결국 6일째는 목에서 피가 터져 나오더만. 그때서야 그놈들이 면회를 시켜주지 않았잖나.”

면회를 기다릴 때 어머니의 마음은 무척 급했다고 한다. 그것은 자식의 무사를 확인 하려는 마음

보다는, 엄마 놀란 가슴을 분명 걱정하고 있을 자식에게 엄마가 당당히 싸우고 있는 것을 보여주고픈 마음이었다. 그것을 시작으로 어머니의 오지랖은 무척이나 넓어졌다. 틈틈이 먼길 마다 앓고 올라오시어 싸움도 함께 하시고, 밖에서 싸우는 사람, 안에서 수감중인 사람 가리지 않고 챙겨주신다.



그러나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도 알았고 좋은 사람들은 많이 알았지만 어머니는 오히려 아무것도 모르고 살았을 때가 어찌면 더 신명났다고 한다. 그때 정직하고 진실한 사람들이 복받는 세상이라 철썩같이 믿었으니까.

“저거 그렇게 잡혀 들어가고 이 세상을 보니 내가 알았던 세상과는 하늘과 땅 차이 아니잖나. 간첩이라면 무조건 나쁜 사람들인줄로만 알았지. 6·26때 행방불명 되었던 사람, 고기잡이 하다 우연히 월북했던 사람들은 왜 간첩 맨글어서 무기를 살게 하나. 학생들이야 정치에 대해 말이 많으니, 우리

“엄마 자식덕에 완전 새 세상을 봤제”

새끼들까정은 그렇다쳐도, 강제철거 당하고 항의한 것은 왜 국가보안법이고, 임금투쟁한 사람들, 전교조 선생들은 왜 국가보안법이나 말이지. 이런 몸살 일들이 너무도 어처구니 없다. 우리 국민들이 그걸 몰라준게 엄마 가슴아파 병이 날 지경이구마.”

며칠전엔 김성만씨 어머니와 함께 김성만씨 먼

회를 갔다 장기수라 어둡고 침울할 것이라 생각했는데 너무 활발하고 똑똑해서 더 가슴 아팠다고 한다. “그래, 난 우리 갑석이가 제일 이쁘고 똑똑한 줄 알았는데, 어머니 아들은 더 잘났네요” 하셨단다. 그리고는 올라오는 차 안에서 두손 잡고 함께 내내 우셨단다.

갑석군은 현재 대전교도소에 수감중이다. 이번달로 수감생활 4년째를 맞이했다.

“갑석이는 건강해. 그곳에서 갑석이만 장기수 선생님들과 한 동에 있다네. 선생님들이 갑석을을 많이 의지하신다더만. 가도 선생님들 수발드는 것을 제일 큰 일로 여기고 있고, 만약 우리 갑석이 나 오면 그분들 어쩔까 생각하니, 갑석이 나오는 건 바랄 수도 없구만. 그분들이 다 나오신뒤 갑석이 석방돼야 엄마 맘이 편겠네. 그때까정은 엄마가 싸워야 재.”

처음엔 민가협 어머니들 사이에 코메디언으로 소문날 정도로 활발하셨던 분이 지금은 얼굴에 수심이 가득하시다. 가슴 아프고 억장 무너질 일이 주위에 하도 많으니, 자식은 날로 의젓해져가도 어머니 가슴앓이는 깊어만지는 것이다. 어머니 서늘한 가슴을 느꼈던 그날, 저녁뉴스엔 민자당의 추곡수매가 날치기 통과 속보가 터져 나왔다.



▶ 90년 전대협 4기 집회에 함께하신 장양엽 어머니. 어머니 얼굴에 가득찬 수심이 건힐 날은 언제일까

오늘, 내 사는 이 땅이 자랑스럽다!

박 남 식 (28세, 회사원)

○ 후 12시 10분.

└ 며칠동안 쌓인 피로를 풀려고 잠시 눈을 붙였는데, 역사기행버스를 놓치는 꿈을 꾸다가 퍼뜩 눈을 떠보니 시계는 약! 1시 20분을 가리키고 있는 것이 아닌가! 허둥지둥 짐을 꾸리고 약속장소인 현대백화점 주차장에 도착하니 2시 15분. 다행스럽게도 버스는 나와 같은 지각생을 기다리고 있었다.

반의세 반봉건의 기치 아래 압제의 굴레를 떨쳐버리려 결연히 일어섰던 동학농민과 통일조국을 위한 자주,해방전사들의 숨결이 살아있는 담양,순창,정읍으로의 역사기행은 부끄럽게도 이렇게 시작되었다.

버스안에는 장기수 선생님과 양심수 후원회회원을 비롯한 가족들(4살 박이 꼬마에서부터 여든이 넘으신 최남규 선생님까지)이 기다리고 있었고, 갑작스런 소나기가 내리는 속에서 버스는 출발했다. 유치원 선생님이라고 소개하신 모성룡 회원님의 재치있는 사회로 서로를 소개하는 시간을 갖고, '동학농민가' 노래와 '큰술발밑에 작은술발' 율동을 배우는 동안 낯설었던 얼굴들은 친숙해졌고, 어느덧 버스는 우리들의 숙박지 담양군 가마골에 도착했다.

하늘에는 별이 총총, 공기는 더없이 신선했다. 예정시간보다 2시간 가량 늦게 도착했지만 금강산도 식후경이라, 오리고기를 반찬으로 저녁 식사를 맛있게 먹고 한숨들린 후 큰 방에 모였다. 그곳에선 순창군 농민회 여러분들이 우리를 따듯이 환영해 주셨다.

상견례를 하는 동안 농민회 회원 한분께서 들려주시는 쌀수입 개방 등 농촌의 열악한 현실에 대한 토로와 통일을 염원하는 국민을 기만하고 '핵핵' 거리기만 하는 현 정부에 대한 규탄의 말씀에 민중의 고통받는 현실이 새삼 가슴깊게 느껴졌다. 바로 이어서 임방규 선생님께서 해방공간과 전쟁시기에 민중의 염원을 실현하려는 지난했던 과정들을 설명하셨다. 자주적이고 인간다운 삶을 위한 농민들의 생존권투쟁은 동학농민전

사람은 가고 없지만
“시대정신”은 자연과
더불어 영원한 것인가 ...

쟁이후 지금까지도 즐기치게 이어오고 있음을 새삼느끼게 된다.

금새 시간은 자정을 넘겼고, 싱싱한 배추안주를 곁들인 걸죽한 막걸리가 차려진 뒷풀이 시간이 우리를 기다렸다. 기다란 흰 수염을 가지신 최남규 선생님의 젊은 시절 애틋한 사랑 이야기로 낭만에 젖기도 하고, 귀염둥이 꼬마 이상형 군의 '개똥벌레' 노래에 해맑은 웃음지으며 가마골의 밤은 깊어만 갔다.

맑은 하늘이 아름다운 가마골에도 아침은 밝았다. 조금은 쌀쌀했지만 간단한 체조와 달리기로 몸을 풀고, 가벼운 식사 후 본격적인 기행에 들어갔다. 가마골 중턱까지 가볍게 오르내린 후 1952년 한사람의 생존자만을 남긴 치열했던 전투의 현장, 여분산을 올랐다.

오르는 길가에 감나무에 감이 주렁주렁 열려 있어 이에 감동한 몇몇 일행은 선두를 놓치고 미아가 되어 한참을 헤메이기도 했다. 경사는 점점 가파라지고 인적이 드문 산이어서인지 길도 순탄치 않아 오르는 길은 힘들었다. 그러나 선생님들께서는 잘 올라가셨고, 이에 분발하여 젊은 우리들도 열심히 길을 재촉했다. 능선을 탈 때는 눈도 쌓여 있어 장난을 치기도 하며 지친 몸을 잠시 잊었다.

2시간에 가까운 고생 끝에 드디어 정상 정복! 사방을 둘러보니 멀리 지리산에서 무등산, 추월산, 내장산, 회문산 등 전라도에 있는 모든 산들은 한눈에 들어오는 듯 이곳이 전략적 요충지임을 쉽게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다. 잠시 정상정복의 기쁨을 나누며 기념사진 촬영을 마친후, 임선생님께서는 당시 치열했던 전투상황을 설명하시면서 깊은 상념에 잠기시기도 한다.

누가 말하지 않았지만 모두는 숙연한 자세로 불꽃되어 앞서간 영혼들에 통일조국의 염원을 실어 묵념을 하였다.

웬지모를 뿌듯한 가슴으로 내려오는 발걸음은 가벼웠다. 감달린 감나무들은 우리들에게 수난을 당하며 고픈 배를 채워 주었고, 순창 농민회 청년회원께서 정성껏 차려주신 맛있는 점심상을 깨끗이 비워버렸다.



▲ 전남 담양군에 위치한 가마골 야영장에서 갈길을 더듬고 있는 우리들

순창 농민회 분들과의 아쉬운 작별을 뒤로 하고, 버스는 100년전 반외세, 반봉건 투쟁의 봉화를 올렸던 동학농민의 뜨거운 피가 숨쉬는 황토벌판으로 내달았다. 기념관 안에는 치열한 전투에 사용되었던 낫, 투구, 옷 등과 전투상황을 묘사한 커다란 그림이 전시되어 있어 마치 그날의 함성이 들리는 듯 하였다. 버스를 타고 돌아오는 길에는 “만-석보 터지는 물에 새 길 열릴때” 노랫말에 나오는 바로 그 만석보와 죽창을 손에든 무려 1만 5천 명의 농민군이 봉기했다는 “앞으면 죽산이요, 서면 백산”이라는 백산을 주마간산 격으로 보면서, 사람은 가고 없지만 자연과 함께 영원히 살아있는 “동학 농민 정신”을 되새겨보기도 했다.



▶ 전남 순창군에 자리한 여분산(750m) 꼭대기에서 무등산을 바라보며 모두 함께 찰라!

한가지 아이러니칼했던 것은 갑오농민군의 첫 승전지인 황토현에 61년, 87년 두차례에 걸쳐 세워진 기념비가 모두 비정상적인 과정으로 집권한 군출신 독재정권에 의해 세워졌다는 점이었다.

서울로 돌아오는 버스 안에선 간략하게나마 1박 2일 동안의 기행을 정리, 평가하는 시간을 가졌다. 회원들의 참여가 미흡했던 점이나, 너무나 시간이 촉박하여 차근차근 역사의 현장을 되새겨보지 못한 아쉬움도 있었지만, 처음 시도한 역사기행이었다는 의미를 가지고 이 다음에는 더 준비성있는 역사기행을 만들어볼 것과 한편으로는 이 시대의 민중인 순창 농민분들과 함께 하는 삶을 느껴볼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했다. 처음부터 끝까지 우리들의 안전한 기행을 책임져 주신 운전사 아저씨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는 것도 잊지 않았다.

100Km/h 이상으로 질주하는 버스 안에선 헤어짐을 아쉬워하는 사람들이 소주잔을 기울이며 신명나는 노래와 춤판이 어우러졌고, 자정이 넘어 집으로 돌아가는 나의 머리는 역사기행의 현장으로 자꾸만 달려가고 있었다.

자주와 통일을 위해 아낌없이 삶을 바친 순결한 녀들이 살아 오늘로 부활하는 이 땅이 새삼 자랑스러웠던 첫번째 역사기행이었다.

어머님과 함께 느낄 아름다움을 그리며

황 대 권 (38세 · '구미유학생' 사건으로 9년째 수감중)

어머님, 햇살 눈부신 가을 한낮입니다. 93년도 이제 두 장의 달력으로 남았습니다. 오늘, 가을 햇살이 하도 좋아 창가에 기대어 건너편 산자락을 하염없이 바라다 봅니다. 문득 지난주 면회 면회 때, 오시면서 단풍구경 실컷 하셨다는 어머님 말씀이 떠오릅니다. 그리고 보니 이 달로서 안동 교도소에 이감온 지 만 6년이 지났습니다. 가보아야 결국은 또 다른 감옥이지만, 차창 너머로 바깥세상을 구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감은 분명 즐거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그때 대전에서 안동까지 어떤 경로로 왔는지 확실히는 모르겠지만 커다란 호수를 빙빙 돌아온 것으로 보아 새로 만들어진 충주호를 지나온 것이 틀림없습니다. 파아란 물과 타는 듯한 단풍 그리고 하얗게 펼쳐진 억새밭... 그 사이를 구불구불 빠져 나오면서 저는 잠시 수인임을 잊었습니다. 누군가 “예술은 길고, 인생은 짧다”라고 했지만 나는 “환희의 순간은 짧고, 회색의 시간은 길다”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사실 우리네 삶을 시간이란 잣대로 나누어 보면 이 말이 틀리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아름다운 인생’ 운운 하는 것은 환희의 시간이 회색의 시간보다 더 길어서가 아니라 비록 짧은 시간이나마 그것으로부터 느껴지는 감동의 여운이 상당히 오래 가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아름다운 인생’을 말할 수 있으려면 다음 두 가지를 몸에 익혀야 된다고 봅니다. 첫째, 기쁘고 즐거운 땀 세상만사 다 잊어버리고 기뻐하며 즐겨워 할 것. 둘째, 어렵고 힘들 때일지라도 기쁘고 즐거운 때를 생각하며 주눅들지 말 것.

어쩌면 이것이 제가 ‘10년 징역’을 아무 탈없이 잘 지내온 ‘비결’인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징역이 20년, 30년 단위로 높아지면 이런 정도의 마음가짐으로 견뎌내기 어렵습니다. 좀더 치열하고 낙관적인 ‘철학’이 필요합니다. 저는 이제 겨우 10년의 문턱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과연 개혁을 부르짖는 문민정부가 저를 더욱 치열한 어떤 인간으로 버려낼지, 아니면 지금 이 정도로 내버려 둘지는 두고 봐야겠습니다. 제발 이 땅에 보통사람들이 대하기 꺼끄러운 특수인간들이 양산되지 말았으면 하는 것이 저의 바램입니다만.

어머니 해마다 이맘 때가 되면 앞산이 물들면 대전에서 이감을 때의 그 아름답던 산천을 떠올립니다. 이제 이곳까지 오시면서 어머님과 제가 느꼈던 따따따로의 아름다움이 아니라, 어머님의 두 손을 꼬옥 잡고 함께 느껴야 할 아름다움을 달래봅니다.

날씨가 추워집니다. 감기 걸리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93. 10. 26.

안동에서 불효 둘째 올림.

절벽에 선 나무처럼 깊은 뿌리를 ...

이 점 성 (55세 · 92년 사노맹 사건으로 구속,
3년 형을 선고받은 전경희님의 어머니)

보 보고싶은 경희야

어느덧 가을인가 하였던니 눈보라 휘날리는 달갑지 않은 겨울이 찾아 왔다. 날마다 기다려지며 하루에도 몇번씩이나 편지함을 더듬으며 기다리던 너의 편지 잘 받아 보았다. 그동안도 잘 지내고 있는지 궁금하다. 내일부터는 또 추워진다는 날씨가 영하로 떨어진다니 또 마음이 아프구나. 지난번 너는 첫눈이 밤새 하얗게 내려 나뭇가지 위에 소복이 쌓여도 설레임과 감동을 느껴볼 겨를도 없이 냉동실같은 곳에서 입김이 서리는 가운데 장갑을 끼고 편지를 쓰는 데도 손이 곱아 글씨가 제대로 안되었다고 하니 그 얼마나 추웠겠느냐?

너희들을 생각하는 이 엄마는 어찌 따뜻한 온돌방에서 잠을 잘 수가 있겠는가? 그리고 추위를 이기기 위해서 운동후 찬물로 냉수욕을 하며 한겨울에 감기 걸리지 않으려고 안간힘을 쓰고 있다지?

하기야 감옥에서 한겨울은 조금만 게으름을 피우면 얼어서 동태가 되기 쉽다니 말이 그렇지 얼마나 춥겠느냐? 그러니 자식을 감옥에 둔 우리 민가협 어머니들은 집에서 앉아 있을 수가 없어 이 겨울 지나가기 전에 우리 아들 딸들을 집으로 돌려보내 줄 것을 요구하며 금년 12월 23일까지 매주 목요일 탑골공원 앞에서 목요일집회를 열고 이번 성탄절은 너희들과 온가족이 한자리에 모여서 지낼 것을 믿고 있다.

아직도 밖에는 초겨울인데 너의 편지를 보니 너는 겨울이 중반이나 지난줄 알고 있구나. 이것은 흑한의 겨울이 빨리 지나가기를 학수고대 하는 너의 급한 성미가 아닌가 싶다. 아무튼 이 겨울을 지혜롭게 추위와 싸워 이겨야 한다.

경희야 지난번 면회길에 중부고속도로를 타고 가는 길목엔 산을 쳐다보니 토질 좋은 평지에서 아무 간섭없이 제멋대로 자란 나무들은 가지가 많아 흔들리기 쉽지만 각아지르는 듯한 절벽에 선 나무들은 강한 태양열과 모진 세찬 바람에 단련을 받아 그 뿌리가 깊게 박힐 뿐 아니라 쪽쪽 뻗은 곧은 버팀목이 된 것을 보고 감격해 하지 않을 수 없었다. 왜 이 자연을 보기만 하여도 가슴이 벅차 오르는지, 오직 이것은 성난 먹구름이 드리우는 것은 순간이지만 흘러가는 자연의 계절은 어느 누구도 막을 수가 없는지라 이 모든 아픔은 바탕이 되고, 세월은 약이 되어 훗날 눈부신 새날도 활짝 웃을 그날을 기다리면서 아무쪼록 추운 날씨에 동상 걸리지 않도록 몸관리 잘하도록 하여라. 그럼 이만 줄이고 다음에 또 소식 전하도록 하자.

1993년 12월 2일 서울에서 엄마가

초보 아빠, 엄마의 기쁨

정 희 중 (29세 · 대한항공 근무)

출산 예정일이 5일이나 지났는데 아기가 나올 생각을 않는다. 험한 세상에 나와서 고생하느니, 하루라도 더 엄마 배속에 있고 싶은 것일까? 오늘도 설마 하면서 출근을 했는데, 전화가 왔다.

“양수가 흘러 나와서 병원으로 가야겠어요”, “그래, 알았어 금방 갈게…”.

분만 대기실에 산모를 입원시키고 나서의 초조함.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 아기가 나올 생각을 안 하는 것이다. 산모도 편히 누워서 종이접기를 하고 있고… 새벽 2시부터 진통이 오기 시작했다. 같이 입원한 산모들도 죽겠다고 소리지르고…

아침 10시, 의사와 간호사가 오더니 보호자는 나가라고 한다. “아, 이제부터구나” 하고 밖에서 초조하게 기다리는데 1시간이 지났을까, 의사가 부르더니 자궁문이 안열려서 수술을 해야겠으니 결정을 하라는 것. 진통 때문에 험쵸한 아내의 얼굴을 바라보며 막막한 느낌밖에는 없었다. 수술을 해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면 그렇게 해야지 마음을 먹는데, 아내가 일단 기다려 보다가 의사가 수술을 하자고 하면 그때 가서 하겠다는 것.

밖에서 착잡하게 기다리는데 같이 입원한 산모들이 하나, 둘 출산을 했다고 보호자들을 부른다. 기뻐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는 더 착잡한 기분. 그리고 하루가 지났다. 밤새도록 진통을 겪느

라 고생한 아내는 이제 완전히 초죽음 상태… 꼬박 이틀밤을 비몽사몽으로 새우고 난 오전 11시 33분. 그렇게 속태우던 아기가 우렁찬 목소리로 세상에 태어남을 알렸다. “아들입니다”고 하면서 보여주는 아기의 얼굴. “이게 진짜 우리가 만든 아기인가?” 신기하기도 하고… 만 이틀동안 그렇게 애를 태웠건만 뱃기는 커녕 오히려 감사하다는 마음을 갖게되는 것은 부모의 공통된 마음일까?

아빠를 닮아서 배속에서부터 코잔등에 하얗게 여드름을 달고 나온 아들, 그리고 부모가 된다는 것이 얼마나 힘든 것인가를 태어나면서부터 가르쳐 준 아들 앞으로 사회에서 으뜸 기둥, 으뜸 재목, 큰 일꾼이 되라고 대들보 동(棟), 으뜸 원(元), 동원이라고 이름을 지었다.

이제 태어난지 22일이 지난 동원이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는 것인지, 보채는 것도 많아지고 나름대로 확실한 의사표현을 하면서 매일 밤마다 초보 부모를 괴롭히고 있다. 사람을 낳고 키워보면서 생명의 존중함과 인간의 고귀함을 알게 되는 것일까? 아무것도 모르는 본능만을 갖고 있는 동원이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면서 귀를 열어 세상의 소리를 듣고, 눈을 떠서 세상의 만물을 보고, 입을 열어서 말을 하게 되겠지. 이름만큼이나 튼튼하고 열심히 살아가는 한 생명을 키워나갈 것을 다짐해 본다.

이런일이 있었어요

11. 1 - 미국 시카고에 거주하시는 신지혜 님이 성금 20달러와 편지글을 보내주셨어요.
-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께 생활지원을 해드렸습니다.
11. 2 - 국제사면위원회 소속 아시아 담당 조사관 두분이 민가협 사무실을 방문해서 양심수의 현황에 대해 조사했습니다.
- 일본에 있는 손유형 후원회, 유정식 후원회 회원이 후원금으로 20,000 원, 30,000원을 주셨습니다.
- 대구 카톨릭 대학 병원에 입원, 치료중이신 김종호 선생님께 권오현 회장님, 김정숙 회원이 문병을 다녀왔습니다.
11. 3 - 안성 중앙대에서 고 이내창 열사 추모제가 있었습니다.
- 민청학련 운동계승사업회 모임이 YWCA에서 있었습니다.
11. 4 - “이근안 체포와 고문근절을 위한 민가협 목요집회”를 탑골공원에서 가졌습니다.
- 현대교회에서 성금 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11. 5 - 국제사면위원회에서 민가협 사무실을 방문하여 수감중인 양심수 가족들과 만났습니다.
- 사회주의과학원 사건 재판을 방청했습니다.
11. 6 - 대전 사랑의 집(김용수, 김명수, 함세환 선생님 거주) 집들이에 다녀왔습니다.
- 이구영 선생님의 “호서의병사적” 출판기념회가 있었습니다.
- 민주주의민족통일 서울연합 하루주점에 참석했습니다.
11. 8 - 후원회 11월 운영위원회 회의가 있었습니다. 10월 사업보고, 회계보고, 역사기행, 복지 기금, 양심수를 위한 시와 노래의 밤을 의제로 토의했습니다.
- 11.10 - 역사기행 사전답사를 다녀왔습니다. (정읍, 순창, 담양 지역)
- 11.11 - L.A 양심수 자녀돕기 모임에서 성금 300\$을 보내주셨습니다.
- [후원회 소식] 25호를 발송했습니다. 이승아, 이정태 회원이 큰 도움을 주셨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주제로 하여 2시부터 1시간동안 탑골공원에서 열렸습니다.
- 11.12 - “쌀 수입개방 저지를 위한 전국 농민집회”가 있었습니다.
- 11.13 - 민주개혁을 촉구하는 민주주의민족통일전국연합 집회에 함께 했습니다.
- 홍전영, 강정구 회원, 모지희, 신현부 회원의 결혼식이 있었어요. 함께하지 못하신 분, 늦게라도 축하해 주세요!
- 11.15 - 이종환 선생님께서 국제사면위원회와 이야기를 나누셨어요.
- 11.16 - 민가협 “민주가족의 날” 회의가 사무실에서 있었습니다.

- 후원회 지도위원이신 김승훈 신부님께서 여의도 성당으로 옮기셨어요.

후원금으로 1,000,000원을 주셨습니다. 깊이 감사드립니다.

- [후원회 소식] 26호 편집회의를 사무실에서 가졌어요. 이번부터 김언경 회원이 편집부에 함께 하기로 했습니다.

11.17 - 민가협 목요집회가 “군·경 양심선언 구속자 석방”을 주제로 하여 탑골공원에서 있었습니다.

11.20 - 이종환 선생님 생신이었는데 음시룡 감시룡 회원들과 천안에 살고 계시는 분들이 축하해 드렸어요.

11.22 - 회원 기획회의가, 서울 하늘에 날리는 첫눈 내리는 밤에 있었습니다.

주 내용은 역사기행에 관한 것이었습니다.

- 역사기행 자료집을 만들었습니다. 김병일 회원이 수고하셨습니다.

- 미국 수도장로교회 이정우 님에게서 편지가 왔습니다.

- 인의협에서 출소 장기수 선생님들 검진결과 보고서를 보내주셨습니다.

사당의원 14분, 김지영내과 19분, 성수의원 6분, 모두 39분의 검진 결과였습니다.

11.25 - 미국 수도장로교회에서 성금 500\$을 보내 주셨습니다.

- 민가협 목요집회가 탑골공원 앞에서 “거리음악제”로 열렸습니다.

박진원, 조국과 청춘, 서기상, 김영남 님께서 노래를 불러주셨습니다.

전주교도소에 수감중인 손병선 님의 편지를 딸 손민아 님이 낭독하셨습니다. 비는 추적 추적 내리고 어머니들 모두 눈물바람이었습니다.

11.26 - 민가협 운영위원회가 있었습니다. 시와 노래의 밤 공연문제, 목요집회 평가 등의 주제였습니다.

11.27 - 28까지 1박 2일로 '93 회원 역사기행을 다녀왔습니다.

모두 39명이 함께하여 담양, 순창, 정읍 지역의 갑오농민전쟁 전적지와 분단의 비극적 전적지를 둘러봤습니다.

11.27 - 경동교회 청년회에서 ‘양심수석방을 위한 하루주점’의 성금 50만원을 보내주셨습니다.

양심수의 겨울나기에 따뜻한 온기가 될 것입니다.

11.28 - 순창군 구림농민회에서 50,000원의 후원금을 주셨습니다.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11.29 - 각 교도소에 수감중인 5년 이상 장기 복역 양심수들께 각 1만원씩의 영치금을 보내드렸어요.

11.30 - 미국 수도장로교회 자녀돕기 성금을 이현치님, 서경원님 자녀분에게 전달했습니다.

- L.A 양심수 자녀돕기 성금을 윤용기님, 권용목님 자녀분에게 전해드렸어요.

- ‘성수의원’에서 건강기금으로 15만원을 주셨습니다.

알려드립니다

1. 김종호 선생님(올해 78세) 입원하셨습니다.

지난 89년 30년간의 옥고를 치르시다 온갖 병으로 한 몸 지탱하시기도 어려워서 민가협등 여러 민주단체들의 싸움끝에 리어카에 들러 옥문밖에 나오시게 된 김종호 선생님은 이제껏 경북 성주군에 자리한 소망 양로원에 계시다가 폐렴, 결핵등으로 건강이 악화되셔서 11월 1일 대구지역 민가협과 여러 청년들의 도움으로 지금 대구 카톨릭 대학병원 725호실에 입원, 치료중입니다. 선생님의 빠른 쾌유를 빕니다.

2. 금재성 선생님의 쾌유를 빕니다.

봉천동에 살고 계시는 금재성 선생님께서 11월 27일 새벽 갑자기 건강이 좋지 않으셔서 민중탕제원에서 치료를 받으시고 지금 자택에 계십니다. 예전처럼 건강한 모습을 빕기를 원합니다. 선생님, 힘내세요!

3. 이덕우 변호사 CBS 라디오 출연

후원회 운영위원이신 이덕우 변호사께서 CBS라디오 「CBS 칼럼」에 출연하고 계십니다. 매주 목요일 아침 6시 40분, 만나보세요.

새회원을 환영합니다!

1. 김현덕 (관악구 봉천동)
2. 박정숙 (부산시 남구 남천동)
3. 유성예 (양천구 목3동)
4. 이화여대 87 '희망찾기' 모임
5. 강효남 (수원시 장안구 정자동)

6. 이영아 (광주시 북구 두암동)
7. 김지영 (경기도 여주군)
8. 고은강 (도봉구 수유동)
9. 임창훈 (중구 서소문동)
10. 이창재 (중랑구 면목7동)
11. 이지혜 (광주시 북구 두암동)
12. 정선미 (은평구 대조동)
13. 윤순철 (광주시 동구 계림동)
14. 한민구 (수원시 팔달구 메탄동)
15. 김용희·배우섭(천안시 사직동)

11월에 구속된 양심수

1. 오세중, 이용철(이상 시립대), 김미라(동덕여대 졸), 안훈찬, 장 운, 최문실 (이상 연세대 졸), 김진원, 윤종현(이상 단국대, 현역 군인)

지난 11월 11일 서울시 경찰청에 의해 '혁사노' 사건으로 국가보안법 위반 구속, 현재 서울 구치소와 기무사에 수감중.

2. 김상우, 마삼진, 박현정, 양기석, 이원희 (이상 전남대)

전남대 무역학과 '해오름'이라는 소모임 구성원들인데 지난 11월 3일 광주 미문화원 시위와 관련하여 연행했다가, 별다른 혐의점이 보이지 않자, 이른바 국가보안법상 이적 표현물 소지로 구속, 지금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3. 강희창, 심상호, 이광재(이상 전남대), 변맹섭, 이일규(이상 조선대)

광주 미문화원 시위와 관련하여 집시,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으로 구속, 광주교도소에 수감중.

묵인 몸 묵인 세월

고규태 글 정세현 곡



1. 찬서 리 쇠창살-에 눈보 라 몰아 쳐 도 봄꽃
2. 아득 한 기억속-에 산마 을 연기 나 고 어린
3. 서산 에 지는해-는 어머 니 얼굴 인 가 밤새



이 피어나-고 갈잎 은 다시 저 도 조국
날 뒷동산-에 솔바 람 불어 와 도 고향
위 내린비-는 어머 니 눈물 인 가 새벽



이 나를 불 러 청춘 을 바쳤 노 라 아-
이 그리 우 면 노래 를 불렀 노 라 아-
이 동터 오 면 가슴 은 뛰었 노 라 아-



아 아- - 아 묵인 몸 묵인 세-월 아침



해 빛나는-곳 그나 -라-로 나는가 네



◆ 양심수 후원회원을 찾습니다

온나라에 변화와 개혁의 목소리가 높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도 조국의 분단의 상처를 가슴 한켠에 묻어 둔 채 350여명의 양심수들은 독재시대와 다를 바 없는 감옥살이를 하고 있습니다.

화려한 '문민정부'라는 유행어도 양심수들에게는 감옥 밖에서나 존재하는 이름일 뿐입니다.

이들 양심수들 중에는 적개는 10년, 심지어는 43년 동안이나 갇혀있는 장기수가 77명이나 됩니다.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가슴 아픈 현실이 끝나지 않는 것을 우리모두의 무관심과 노력부족 때문이라는 반성올하며 지난 1989년 3월 19일 150여명의 회원이 모여 첫걸음을 시작해서 지금에 이르고 있습니다.

사람손길 닿지 않고, 햇빛 한 점 자유롭게 맞볼 수 없는 분들에게 감옥 밖에 사는 사람들의 조그마한 정성과 관심, 사랑은 큰 기쁨과 삶의 희망으로 될 것입니다.

분단의 벽을 넘어 통일의 길로 가는 작은 걸음에 함께 하지 않으시겠습니까?



■ 양심수후원회는 이런 일을 하고 있습니다.

- ① 양심수 석방운동에 적극 함께 합니다.
- ② 3,40년 동안 분단의 창살 아래 갇혀 있던 장기수 분들에게 영치금 발송, 편지보내기 등을 전개합니다.
- ③ 20~30년의 삶을 감옥에 묻어 두고 옥밖으로 나오신 출소장기수분들의 생계를 지원해 드리고 터전을 마련하는 사업을 합니다.
- ④ 의탁할 곳이 없는 양심수, 출소장기수 분들과 자매결연을 추진합니다.

민 주 화 실 천
가족운동협의회

양심수후원회

서울시 종로구 창신2동 592-7
☎ 763-2606 (F) 745-5604
☎ 110-542

□ 이용하실 송금구좌 □

제일은행	128-10-201180	(양심수후원회 권)
신택은행	15701-1213703	(양심수후원회)
국민은행	006-01-0601-098	(권오현양심수후원)
농 협	053-01-112692	(권오현 양심수)